

2022년 07월 24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67편 7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00(통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4 1~11절(구약p.764)

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3.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4.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5.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 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매 네가 놀라는구나
6. 네 경외함이 네 자량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7.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9.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10.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11.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 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흠어지느니라

◎ 말씀선포 / 비난 대신 위로를

욥은 고난 가운데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솔직하고도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토로했습니다. 그렇다고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이기에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욥의 모습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멀리서 위로하기 위하여 온 친구들은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친구 중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의 꾸짖음과 탄식을 듣고서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삶의 연륜과 지혜가 쌓인 나이임에도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욥을 비난하

는 엘리바스를 보면서, 위로해야 할 사람이 피해야 할 행동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성도가 삼가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 욥이 분노에 가까운 탄식을 쏟아 놓자 그의 말에 불편함을 느낀 엘리바스가 주저하며 말을 꺼냅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 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매 네가 놀라는구나.” 엘리바스는 욥이 경건하고 온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에게는 선한 사람이 세상에서 불행한 결말을 맞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욥이 힘들어하던 이웃들에게 했던 조언을 왜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느냐고 조심스레 지적합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눈에는 욥이 일관성 없는 사람으로 비쳤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고통 없이 일상을 살던 욥이 고통을 당하자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 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매 네가 놀라는구나.” 여기 “힘들어”는 히브리어 “와텔라” 원형은 “라아”로서 그 뜻은 “피곤하다, 싫어하다, 불쾌하다, 화가나다.”입니다. 또 “놀라는구나”의 원문은 “와팁바헬”로서 원형은 “바할”인데, 그 뜻은 “놀라다, 동요하다, 때로는 놀라 도망치다.”의 뜻입니다. 즉 자신이 평안할 때 다른 자들을 위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권면했던 욥이 자신이 막상 이러한 고난에 처하게 되자 피곤하고, 괴로워하고, 화를 내며 그 고난에 동요되어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하듯 한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욥이 모습을 보며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며 고난 가운데 터져 나오는 인생의 하소연임을 알고 있습니다. 욥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합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하며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삶의 어두운 면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난 자들을 보며 때론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이 상대방을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믿음이 굳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사랑이 많고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기적인 사람이란 걸 이제야 알았다고 판단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이런 평가와 판단이야말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이러한 지적이 욥에게 더 큰 아픔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엘리바스의 잘못을 답습해 가며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그들을 판단하기에 급급합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입바른 판단보다 따뜻한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인과응보라며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 엘리바스는 계속 욥을 비난합니다. 6~11절입니다.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발 같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 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사람의 행실을 보시고 판단하시며 그에 따라 상벌을 정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철저히 인과법칙에 따라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욥은 선한 사람으로 행세해 왔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악한 행위들을 틀림없이 범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악으로 받을 같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는 욥을 가차 없이 정죄합니다. 이러한 인과응보 사상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사고 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때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에 항상 인과법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는 사

량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5장 6~8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만약 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오로지 형벌만 받는 인과법칙이 적용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법칙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를 비난하는 근거로 함부로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범죄 한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해야 합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바른 성경적 관점을 익히고, 더욱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삶속에 닦아가며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울 수 있도록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삶의 원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원리가 늘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헤아림으로 우리 자신도 평가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성도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판단하여 평가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감하고 참된 위로자로 살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또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82(통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폐 회 / 주기도문